

# 日本은 어떻게 해서 成功하였는가

## - 經濟大國으로 가는 세가지 條件 -

李 亨 純\*

### 〈目 次〉

- I. 머리말
- II. 日本의 資本主義 : 1986年
- III. 歐美에 대한 「따라잡기」 結束
- IV. 日本人의 勤勉精神
- V. 資源이 없는 섬 나라
- VI. 맺는말
- 參考文獻

### I. 머 리 말

일반적으로 日本經濟를 歴史的으로 분석할 때 다음 세 가지 接近方法이 있다. 하나는 統計資料의 利用이 可能한 明治維新(1868年) 이후부터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研究集團으로 一橋(히도즈바시) 大學 經濟研究所 를 들 수 있다.<sup>1)</sup> 다른 하나는 明治維新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江戸(에도) 時代의 遺産에 대한 史實을 數量的으로 파악하여 江戸時代와 明治時代사이에 成長의 斷絶은 없다고 주장하는 計量經濟史的 研究集團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慶應義塾(케이오기쥬크) 大學을 들 수 있다.<sup>2)</sup> 또 다른 하나의 接近方法은 日本經濟의 發展過程을 맑스(K.Marx)의 敎理에서 獨占資本主義의 發展過程으로 파악하려는 日本經濟論이 있다. 이들의 주장을 要約한 것으로 다음의 文獻을 들 수가 있다.<sup>3)</sup>

\* 高麗大學校 經濟學科. 이 論文은 韓國經濟學會의 「第2次 國際韓國人經濟學者 學術大會」(1986.8.18~19) 全體會議에서 發表되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大川一司·H.Rosovsky 共著, 「日本의 經濟成長-20世紀ごあたる趨勢加速」, 東洋經濟新聞社, 1973.

2) 新報 博·速水 融·西川俊作 共著, 「數量經濟史入門-日本の前工業化社會」, 日本評論社, 1975年.

3) 中村隆英 著, 「日本經濟-その成長と構造」, 東京大學出版會, 1982年.

이렇게 日本經濟를 보는 視角에 따라 日本經濟를 분석하는 構想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本稿의 目的은 日本이 經濟的 近代化를 달성시킬 수 있었던 要因은 무엇이며, 오늘의 經濟大國으로 부상할 수 있게한 根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평소 筆者가 體驗을 통하여 얻은 制限된 知識에다 살을 붙여 照明하려는 데 있다.

우선 日本이 開發의 壓力을 받아 後發國으로써 經濟的 近代化에 뛰어 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했던 主要段階를 筆者나름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 日本으로 하여금 오늘의 經濟大國으로 이끌게한 根源을 ①歐美를 따라 잡아야 하겠다는 이른바 「따라잡기 結束」, ② 日本人의 勤勉精神, 그리고 ③ 資源이 없는 섬나라 등, 세가지 要因에서 찾고,<sup>4)</sup> 이른바 日本型 所得政策의 뿌리를 概觀한다. 끝으로 80年代에 들어와 激動하며 多極化되어지는 世界經濟속에서 日本經濟의 進路를 展望하려는데 本稿의 目的이 있다.

## II. 日本의 資本主義: 1986年

### 1. 開港과 明治維新

1853년 페리提督이 조용한 아세아의 바다를 뒤흔들어 놓은지 5년후 1858년에 日本은 「安政條約」을 체결하여 開港하게 되었고 資本主義의 世界市場으로 強制的으로 編入하게 된다.

開港한지 10년후에 明治維新(1868년)이 일어나 歐美의 政治制度, 經濟制度 그리고 教育制度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近代化의 터전을 닦았다. 여기에서 留意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새로운 外國의 文物을 受容할 수 있었던 것은 江戸時代의 遺産으로 이어받은 높은 教育水準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sup>5)</sup>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開港은 德川幕府로 하여금 西歐列強과 對決하기 위해서는 「富國強兵의 政策이 무엇보다 緊要하다는 것을 實感케 했다는 점이다.<sup>6)</sup>

그 당시 開港의 壓力은 日本만 받은 것은 아니다. 日本과 같은해(1858년)에 中國은 「天津條約」을 체결했지만 中國은 近代化에 실패했고 지금와서 그 채비를 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과 中國을 비교하면서 中國이 近代化에 실패한 經濟的 要因으로

4) 拙稿, “明治維新과 經濟發展,” 『亜細亞研究』, 高麗大學校 亜細亞問題研究所, 第XⅩⅦ港, 第2號, 1984年.

5) 中村隆英 著, 앞의 책, 1982년, pp.59-61.

6) Shunsaku Nishikawa, Osamu Saito, “Economic History of the Restoration Period Revisited”, *UNU Conference on the Meiji Restoration*, Oct., 1983, p.1.

덕시(R. Nurkse)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日本은 政府主導下에서 外國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國家發展에 有用하게 사용했지만 中國은 外國資本이 本國의 原料調達을 위하여 直接投資의 形態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7)</sup>

우선 明治時代의 經濟成長率은 약 3%, 大正時代와 昭和時代 그리고 2次大戰이 끝날 때까지 成長率은 4%를 上廻했다.<sup>8)</sup>

## 2. 戰後의 高度成長期

戰後 日本經濟는 1950年代와 60年代를 통하여 年率 10%를 넘는 高度成長을 달성함으로써 「20世紀에 있어서 趨勢加速化」(trend acceleration)을 보여주게 되어 世界의 이목을 끌게 된다.

이 時期에 있어서 日本經濟의 特徵은 近代部門과 在來部門에서 生産性的 隔差를 가진 二重經濟構造 아래서 勞使間의 相對的 分配率이 처음에는 擴大過程을 거쳐 縮少過程 그리고 解消過程을 거치는 時期라고 볼 수 있다.<sup>9)</sup> 그러니까 勞動過剩型 經濟에서 이른바 루이스(W. A. Lewis)의 「轉換點」(turning point)이 이루어지는 時期를 5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sup>10)</sup>

이 時期에 이루어진 政策基調의 特徵을 보면 (1) 潛在的 成長能力에 비추어 成長通貨의 供給이 이루어졌다는 것, (2) 資本의 集中, 企業의 巨大化로 規模의 經濟를 누리면서 大量 生産體制를 確立시켜 原價節減(價格引下)을 했다는 것, 그 결과 (3) 消費者物價는 상승했지만 都賣物價는 安定的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킬 수가 있었고, (4) 円貨의 低平價를 政策的으로 견지하면서 輸出을 증가시킬 수가 있었다. 1965년 日本은 美國과의 貿易去來에서 처음으로 3억달러의 黑字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후 75년까지 10억달러에서 20억달러의 黑字를 견지해 오다가 76년에는 54억달러, 77년에는 81억달러, 78년에는 116억달러로 急増했고,<sup>11)</sup> 1985년 現在는 500억달러에 달했다.

흔히 60년대를 케인즈主義에 뒷받침된 成長의 時代라고 하지만 굳이 日本의 政策基調를 定型化해 본다면 成長定策을 추구했다는 의미에서 케인즈의이었지만 消費支

7)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asil Blackwell, 1955, pp. 90-91.

8) 日本經濟新聞社 編, 「資本主義: 1983年」, 日本經濟新聞社, 1983, pp. 205~208

9) 拙稿, “二重經濟의 發展메카니즘과 貧困感”, 『經濟學研究』, 韓國經濟學會, 제33집, 1985년, pp. 123~127.

10) 南亮進 著, 『日本經濟의 轉換點』, 創文社, 1965年.

11) 篠原三代平 著, 『經濟大國의 盛衰』, 東洋經濟新聞社, 1982년, p. 13.

出에 있어서는 反케인즈的이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企業의 巨大化가 技術革新을 일으켜 規模의 經濟를 누리게 했다는 점에서는 슈페터(J.A.Schumpeter) 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企業의 巨大化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所有와 運營이 分離되어 있고, 量産體制가 價格을 引下시킬 수 있으며, 勞組의 團體交渉力이 하나의 對抗力으로써 재구실을 다하고, 企業家精神이 살아있는 社會에서는 企業의 巨大化가 技術革新을 일으킨다는 슈페터의 持論을 우리는 日本의 發展經驗에서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 3. 스태그플레이션의 克服

토빈(J.Tobin)은 70년대를 「스태그플레이션」의 時代, 80年代를 「인플레이션 퇴치」時代라고 했다.<sup>12)</sup>

아시다시피 1971년 닉슨의 「新經濟政策」은 종래의 IMF體制를 붕괴시켰고 「管理된」變動換率制로 移行함으로써 世界經濟는 減速化時代로 들어간다. 또 1973년에 일어난 「石油波動」은 한꺼번에 原油價를 4배로 치솟게 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時代가 시작했던 것이다.

日本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通貨供給量의 增加率을 1973년의 25%에서 74년에는 10%로 과감하게 줄였다. 그리고 成長率도 절반(5%)으로 줄였다. 그래서 프리드먼(M.Friedman)은 日本經濟를 診斷하는 한 책자에서 美國의 中央銀行보다 日本의 中央銀行(日本銀行)의 專門家들이 자기의 권유를 잘 받아들인다고 다음과 같이 격찬했다. 즉 “日本은 通貨政策을 매우 效果的으로 運營해온 나라이며, 지난 4.5년간의 金融政策의 運營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래서 日本은 1974년에 일어난 걸림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克服했고, 그 結果 사람들의 實質所得도 증가했고, 이것이 原動力이 되어 消費도 증가하고, 中小企業의 設備投資도 이루어졌고, 大企業의 民間設備投資도 높아질 수가 있어서 인플레이션 없는 高度成長이 가능했다”고 말했다.<sup>13)</sup> 이는 종래의 케인즈的 政策基調에서 머니터리즘으로 과감한 轉換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美國, 기타 先進諸國들은 케인즈的 政策基調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日本은 계속 円貨의 相對的 價値를 낮게 견지하면서 輸出을 증가시켰고

12) J. Tobin, “After Disinflation Then What?”, *After Stagflation, Alternatives to Economic Decline*, (ed.) by J. Cornwall, Basil Blackwell, 1984, p. 20.

13) 西山千明・内田忠夫・金森久雄・高坂正堯 共著, 『フリースンの日本診断』, 講談社, 1981年, p. 38.

그 對象地域을 多邊化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主要産業들의 單位當 石油消費量도 거의 30%씩이나 줄일 수가 있었다. 또한 民間設備投資 마인드(mind)가 되살아나도록 總供給管理政策을 쓰면서 未來指向型 産業構造의 再調整을 단행했다. 西獨도 일본과 비슷한 政策基調를 견지하면서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克服했다. 즉, 日本과 西獨은 失業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라울랑(Y. Lalan)은 「雇傭, 利子 및 속임수에 관한 一般理論-케인즈에게는 죄송하지만」((1981년)이라는 재미있는 표제가 붙은 책에서 日本과 西獨을 「지혜로운 나라」(sensible countries)라고 했다.<sup>14)</sup>

그 후 日本은 「에렉트로닉스(electronics) 革命의 新技術開發에 있어서 선두주자(first runner)가 되었고 西獨은 탈락하지만 이번에는 美國과 「하이·테크」분야에서 美國과 貿易摩擦을 일으키게 된다.

#### 4. 「아프터·스태그플레이션」의 時代와 美·日貿易摩擦

1982년 美國과 英國은 金融緊縮으로 인플레이션은 휘어 잡았지만 失業이라는 토끼는 놓쳐버리고 만다. 그래서 콘월(J. Cornwall)은 「아프터·스태그플레이션(after-stagflation)의 時代가 왔다고 했다.<sup>15)</sup> 우선 콘월이 제시하는 <表1>과 <表2>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日本의 경우 1982년 消費者物價는 2.6%, 失業率은 2.4%로 先進7個國중에서 가장 낮다. 이는 失業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난치의 現代病을 동시에 치유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勝者가 있으면 반드시 敗者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흔히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고 한다. 이 루율이 國際貿易에 잘 적용되는 것이다. 輸入보다 輸出을 많이하면 貿易收支가 黑字가 된다. 黑字國이 있으면 반드시 赤字國이 있게 마련이다. 日本이 美國에 대하여 5백억달러에 달하는 貿易收支의 黑字를 기록했다는 것은 따져보면 日本이 생산해 내는 實質GNP이하로 생활함으로써 理由야 어느 편에 있든간에 自國의 失業을 貿易收支赤字國(美國)에 輸出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일찌기 로빈슨(J. Robinson) 女史는 「近隣貧窮化政策」이라고 했다.

그런데 輸入보다 輸出을 좀더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기 쉬우나 貿易收支의 黑字가 계속되면 조만간 貿易外收支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조만간

14) Y. Lalan,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Cheating with Apologies to J. M. Keynes*, 1981, pp. 75~80.

15) J. Cornwall(ed.), "After-Stagflation", *Alternatives to Economic Decline*, Basil, Blackwell, 1984, pp. 2~3.

에 對外純資産이 증가하여 債權國이 된다. 이렇게 해서 經常收支의 黑字基調가 약 30여년간 지속되면 世界貿易을 決濟할 수 있는 基軸通貨國으로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世界貿易의 歷史를 돌이켜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貿易摩擦의 歷史라고 말할 수도 있다. 과거 英國이 「팍스·브리태니커」時代의 기초를 다졌던 것도 經常收支의 黑字가 30여년동안(1850년 ~ 1880년)이나 지속했기 때문이었다. 오늘의 美國이 「팍스·아메리카나」時代의 기초를 다지게된 것도 역시 經常收支의 黑字가 20여년동안(1896년 ~ 1914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sup>16)</sup>

〈表 1〉先進7個國의 消費者物價의 平均增加率

	캐나다 (%)	프랑스 (%)	이태리 (%)	일 본 (%)	영 국 (%)	미 국 (%)	서 독 (%)
1955 ~ 65	1.6	4.4	3.3	3.3	2.9	1.5	2.3
1966 ~ 70	3.9	4.4	3.0	5.4	4.6	4.2	2.4
1971 ~ 72	3.8	5.9	5.4	5.3	8.4	3.8	5.5
1973 ~ 74	9.2	10.6	15.0	18.1	12.6	8.6	7.0
1975 ~ 79	8.9	10.1	15.5	7.3	15.7	8.1	4.1
1980 ~ 81	11.3	13.5	20.0	6.5	15.0	12.0	5.7
1982	10.8	12.1	16.5	2.6	8.6	6.2	5.3

資料出所: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Supplement in Price Adjustment, 1981 and 1982.

J. Cornwall (ed.), After - Stagflation, 1984, p. 2.

日本은 1958년 처음으로 貿易收支의 黑字國이 되었고, 1968년에는 經常收支의 黑字가 대폭으로 누적됐다. 1985년 現在 日本의 經常收支의 黑字는 5백억달러, 對外純資産殘高만 하더라도 1천억달러를 돌파하며 世界最大의 債權國이 됐다. 한편 美國은 1985년 현재 經常收支의 赤字는 1천5백억달러에 달했고, 70여년만에 처음으로 債務國으로 전락했다. 1986년에 日本의 經常收支의 黑字幅은 7백5십억달러에서 8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 보고있다. 작금 美·日間의 貿易摩擦의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16) 篠原三代平 著, 앞의 책, 1982年, pp. 7~14.

1986년 7월 20일 現在 달러當 円貨의 換率은 160円線이 깨지고 超円高時代를 예고하고 있다. 日本의 10大 經濟研究所들이 발표한 報告書에 따르면 円貨의 價値가 150円까지 올라가더라도 1989년까지 해마다 5백억달러의 經常收支의 黒字가 계속될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sup>17)</sup> 円貨의 價値가 125円線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日本의 對外資産의 축적은 정지될 것이라고 한다. 「노무라報告書」에 따르면 이와같은 日本經濟의 底力은 30%를 훨씬 넘는 民間貯蓄率에서 온다고 했다.<sup>18)</sup>

1985년 12월 先進5個國의 실무진들이 모여 40%나 過多評價됐던 「달러」의 換率이

〈表2〉先進7個國의 標準化된 失業率

	캐나다 (%)	프랑스* (%)	서독 (%)	이태리 (%)	일본 (%)	영국* (%)	미국 (%)
1966~73	5.2	2.2	0.9	5.7	1.2	3.3	4.4
1974	5.3	2.8	1.6	5.3	1.4	3.2	5.5
1975	6.9	4.1	3.6	5.8	1.9	4.7	8.3
1976	7.1	4.4	3.7	6.6	2.0	6.0	7.5
1977	8.0	4.7	3.6	7.0	2.0	6.3	6.9
1978	8.3	5.2	3.5	7.1	2.2	6.3	5.9
1989	7.4	5.9	3.2	7.5	2.1	5.6	5.7
1980	7.5	6.3	3.0	7.4	2.0	0.7	7.0
1981	7.5	7.3	4.4	8.3	2.2	10.7	7.5
1982	10.9	8.0	6.1	8.9	2.4	12.5	9.5

資料出所: Economic Outlook, July, 1981, December 1982, and July, 1983, Table R 12.

J. Cornwall (ed.), After - Stagflation, 1984, p. 3.

\* OECD에 의해 조정된 통계자료

떨어지기 시작했고 円貨의 價値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換率調整은 短期의 調整策이고, 보다 長期的인 對策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즉, 美國은 日本에서 内需擴大政策을 쓸 것을 강력히 要求하고 있지만 日本의 입장을 보면 美國이

17) Japan Economic Journal, April 19, 1986, p. 16.

18) 野村總合研究所 編, 「10年後の世界經濟と金融・資本市場, 第1部 10年後の世界經濟と日本」, 1985年, pp. 83~90.

國內貯蓄에 알맞는 投資, 즉 總需要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실은 두 나라의 見解는 對立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美國의 사뮤엘슨(P.A.Samuelson) 교수는 日本의 동료교수들에게 “너희 日本사람들아! 단 몇시간이라도 좋으니 낭비하는 것을 좀 배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美國은 消費를 지나치게 하고 日本은 지나치게 貯蓄하는데서 美·日의 貿易摩擦이 일어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日本人의 貯蓄하는 根源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

### 5. 「일하지 않는 社會」

오늘의 現代經濟學의 爭點은 케인즈(J.M.Keynes)와 하이에크(F.von Hayek)에서 그 源流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sup>19)</sup> 두 사람의 經濟思想은 介入主義와 非介入主義로 집약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하이에크와 케인즈를 들먹거리게 되는 까닭은 첫째로는 80년대에 들어와 美國의 政策基調는 反케인즈의인 것이었으며, 日本은 開港 이후 始終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케인즈의 介入主義를 표방해 왔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1인당 GNP規模가 1만달러 水準에 달하면 그 나라의 活力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른바 「1만달러의 함정」이 있다. 1977년 스웨덴이, 뒤이어 스위스, 美國 그리고 1982년 西獨이 그러했다. 이른바 「1만달러의 함정」이라는 經驗法則을 프리드먼(M.Friedman)은 政府의 過多한 福祉支出이나 稅金, 그리고 社會保險料負擔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상실하는 데서 온다고 했다.<sup>20)</sup>

잘 아시다시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는 이러한 社會의 風土속에서 등장했다. 우선 케인즈의 福祉支出政策이 결과적으로 「일하지 않는 社會」(no work society)<sup>21)</sup>를 出現시켰다고 보고 케인즈의 累進所得稅制 대신에, 「래퍼 曲線」이 표방하듯이 逆進所得稅制을 제창했다. 말하자면 富者가 궁극적으로 貧者를 돕는다는 것이다. 또 美國經濟의 生産性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政府의 역할이 肥大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작은 政府論」(small government)을 제창했다. 이는 아담 스미드(A.Smith)로의 復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減稅政策과 「작은 政府論」이 애초 레이건이 選舉에서 제시한 美國經濟의 「再生計劃」(Reindustrialization plan)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19) 拙稿,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雇傭增大政策,” 월간소식, 社會發展研究所, 1985년 12월.

20) 日本經濟新聞社 編, 앞의 책, 1983년, p. 24.

21) Y. Lulan, 앞의 책, 1981, pp. 176~180.



늘어만가는 貿易收支赤字와 財政赤字를 메꾸어 나가는데도 年間 1천억달러의 外資導入을 필요로 하게끔 했고, 레이건 行政府가 집권한 이래 5개년동안에 걸쳐 美國의 負債는 1兆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애초 「再生計劃」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스톡먼(D.A. Stockman)도 지금와서는 「레이저노믹」의 革命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經濟論理에 앞서 現實의 政治가 勝利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sup>22)</sup>

스톡먼이 펼치고 있는 美國經濟의 「政治勝利論」은 미국경제가 增稅를 필요로 할 때에도 選舉區民을 意識하여 이것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이러한 狀況은 60년대 말에 존슨 行政府가 越南戰과 미국의 「偉大한 社會」건설을 위해 擴大政策을 밀고 나갔을때 케인즈언들(Keynesians)은 增稅를 권유했었지만 존슨도 역시 選舉區民들을 의식하여 이것을 거절했다. 버지니아(Virginia)學派가 論評하듯이 케인즈의 總需要管理政策의 理論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減稅는 가능하지만 增稅는 어려운 美國의 議會民主主義의 政治制度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美國의 新保守主義(neoconservatism)의 흐름을 대표하는 크리스톨(I. Kristol)의 주장을 보면 國內으로는 일찌기 스미드가 「道德感情論」(1759년)에서 펼친 利他主義의 資本主義精神의 復活을 제창하고 있으며,<sup>23)</sup> 對外的 外交政策으로는 「나 쇼나리즘」을 제창하고 있다.<sup>24)</sup>

## 6. 日本型 所得政策의 뿌리

1984년에와서 日本의 1人當 GNP는 1만달러를 넘어섰다. 1985년 現在 美國의 1人當 GNP 1만6천2백달러에 비하여 아직은 뒤져있지만 10년후인 1995년에 가면 1만8백달러가 될 것으로 日本의 野村總合研究所는 展望하고 90년대에 日本은 美國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sup>25)</sup> 그 論據로서 30%가 넘는 國民貯蓄率(粗貯蓄/名目GNP)을 들었다. 美國은 15.1%(84년), 西獨 22.3%(84년), 英國 18.2%(83년)로 되어 있다.

흔히 日本사람들을 「經濟的 動物」(economic animal)이라고 한다. 케인즈는 『一般理論』(1936년)에서 이러한 人間の 經濟行爲를 「일하지 않고서는 건딜 수 없는 意慾

22) A. Stockman, *The Triumph of Politics, How the Reagan Revolution Failed*, Harper & Row, 1986, pp. 376~411.

23) I. kristol, *Reflections of A Neoconservative, Looking Back, Looking Ahead*,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83, pp. 139~176

24) I. kristol, 앞의 책, 1983, pp. 227~230.

25)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pp. 161~163.

(urge to act)이라고 했고, 이러한 「血氣에 찬 蓄積精神」(animal spirit)이야말로 資本主義經濟를 밀고 온 原動力이라고 했다.<sup>25)</sup> 또 케인즈는 이보다도 앞서 그의 哲學을 담은 『確率論』(1921년)에서 이러한 企業家の 蓄積意慾이 둔해지고 自生的 낙관이 흔들려 企業이 未來의 不確實性에 대하여 「數學的 期待值」(合理的 期待形成)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되면 企業은 쇠퇴해지고 사멸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오늘의 「合理的 期待革命」을 비판했다.<sup>26)</sup> 이렇게 오늘의 日本社會는 「일하려는 社會」(urge to act society)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1983년은 케인즈와 슈페터가 탄생해서 꼭 백년, 마스(K.Marx)가 이 세상을 떠난지 백년이 되는 해였다. 日本經濟新聞社의 研究팀은 世界主要國들의 경제학자, 기업가들을 만나보고 『資本主義：1983年』이라는 책자를 출간했다. 이 책의 끝머리에서 「자파노믹스」(Japanomics)의 課題라고 부치고 日本의 近代化를 밀고 온 要因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sup>27)</sup>

하나는 日本이 後發資本主義國家로써 歐美를 따라 잡아야 한다는 「따라잡기」結束으로 「富國強兵」이라는 스로건아래 國民의 合意를 모을 수가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日本型 勤勉精神이다. 이것은 日本特有的 儒教精神에서 온다고 한다. 끝으로 逆設의인 이야기이지만 日本은 資源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要因들이 日本型 所得政策의 展開를 가능케 했다고 말한다.

이 세가지 條件이야말로 오늘의 日本으로 하여금 經濟大國으로 부상시킨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日本型 所得政策의 뿌리란 어떠한 것인가를 보기로 하자.

### Ⅲ. 歐美에 대한 「따라잡기」 結束

日本의 近代化는 森嶋通夫(모리시마미치오) 교수가 주장하듯이<sup>28)</sup> 開港의 壓力을 받고 歐美와의 軍事的·科學的·技術的 落差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富國強兵」의 發展目標아래 歐美의 技術과 制度를 日本特有的 儒教精神을 가지고 積極的으로 導入

26) J. M. Keynes, *A Treatise on Probability*, 1921, *The Collected Writings of J. M. Keynes*, Vol. VII, 1973, pp. 339~356.

27) 日本經濟新聞社 編, 앞의 책, 1983年, pp. 215~226.

28) Michio Morishima, *Why has Japan 'succeeded'?*, *Western Technology and the Japanese etho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季基俊 譯, 『왜 日本은 '成功' 하였는가 日魂才』... 潮閣, 1982年, pp. 16.

하여 日本風土에 接木시키므로써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日本의 發展을 흔히 「日魂準才論」이라고 한다.

### 1. 거셴크론의 「따라잡기」 假設

歐美에 비하여 後發國 (late comer) 으로서 日本은 明治維新 (1868년) 을 일으키게 됐고 歐美의 政治制度, 經濟制度, 그리고 教育制度를 積極的으로 導入했다.

예를들어 教育制度만 하더라도 어느 나라가 가장 훌륭한가, 海軍은, 陸軍은 그리고 警察·産業·金融 등은 어느 나라가 가장 우수한가를 가려내기 위하여 明治政府는 많은 使節團을 파견했다. 1872년 公布된 學制는 프랑스의 學區制度를 모방한 것이며, 日本海軍은 英國海軍을, 陸軍은 프랑스 陸軍, 遞信과 鐵道는 英國을, 大學은 美國을, 明治實法과 民法는 獨逸을, 刑法은 프랑스에서 導入했다고 한다.<sup>29)</sup> 이렇게 各分野에서 日本의 風土에 맞는 最上의 것을 導入했다. 日本의 經濟學者들이 日本의 經濟發展을 거론하는데 있어서 빠짐없이 거셴크론(A. Gerschenkron)의 「따라잡기 假設」 (catchup hypothesis), 즉 「相對的 後進性假設」<sup>30)</sup>를 내세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거셴크론이 펼친 이 假設은 프랑스, 獨逸, 러시아의 發展經驗을 歷史的으로 분석하여 「後發國」의 經濟發展을 모델化한 것인데, ① 後進經濟나 工業化를 시작할 때에는 먼저 緊張狀態가 존재한다는 것, ② 利用 가능한 技術의 축적이 크면 클수록 工業化가 有利하다는 것, ③ 後進國經濟는 先進國과 競爭하려면 가장 近代적이고 가장 效率性이 높은 技術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④ 工業化는 大規模 生産이 擴張되면서 革命的인 發展을 수반한다는 것등이 그 내용이다.

여기서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물론 없지만 거셴크론의 「따라잡기 假設」은 대체로 日本의 經濟的 近代化 過程을 解明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sup>31)</sup> 특히 거셴크론이 펼친 ①의 命題에 대하여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明治維新의 過渡期에서 보듯이 政治的·社會的 緊張 그리고 外勢의 威脅은 日本人들의 民族主義를 자극시켰고 歐美를 따라 잡아야 하겠다는 國民의 合意를 모으게 했다는 점이다. 뮌르달(G. Myrdal) 교수가 강조하듯이<sup>32)</sup> 後進國의 開發戰略에서 가장 重要的 것은 바로 이 國民의 合意를 어떻게

29) Michio Morishima, 앞의 책, 1982, 韓國語 譯, pp. 97~98.

30)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1962.

31) 拙稿, 앞의 論文, 高麗大學校, 亜細亞問題研究所, 1984年, pp. 101~103 참조.

32) G. Myrdal,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Harper & Brothers, 1956.

하나로 集結시킬 수 있으나 이는 문제이며, 이것을 發展의 目標設定問題(target for national integration)이라고 했다.

## 2. 近代部門과 在來部門의 均衡成長

쿠즈넛즈(S.Kuznets)가 國際比較研究를 통하여 얻어진 이른바 「近代的 經濟成長」(modern economic growth)<sup>33)</sup>의 始動이 걸린 것은 1880년대 후반에서 20세기 초엽으로 보고 있다.<sup>34)</sup> 그 以前을 明治維新의 過渡期라고 한다.

日本은 經濟的 近代化의 過渡期에서 우선 農業政策을 단행했다. 인플레이션 政策을 통하여 農民에게 有利하게 한 다음에 다시 地稅를 거두어 發展의 剩餘를 國內에서 創出하여 外貨에 의존함이 없이 國內市場爲主의 農·工의 補完的 發展을 하면서 역시 國內의 潜在的 成長能力을 最大限으로 발휘한 이른바 逆시流의 均衡成長을 했다.<sup>35)</sup>

한편 1876년에서 1881년까지 계속된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드러나자 松方正義 財相이 등장하여 4년간에 걸친 격심한 「松方(마쓰가타) 디플레이션 政策」으로 인플레이션을 휘어 잡은 후 188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쿠즈넛즈가 말하는 「近代的 經濟成長」이 시작됐다. 그리고 第1次世界大戰(1914년)이 일어날때까지 農·工間의 均衡成長을 했다.

大川一司(오카와가즈시) 교수와 로소브스키(H. Rosovsky) 교수는 日本의 「近代的 經濟成長」의 初期局面(1880년대 후반~20세기 초엽)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 命題를 제시한다.<sup>36)</sup> 첫째는 大規模의 資本輸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近代經濟」(modern economy)를 최초로 건설한 그후의 發展은 「在來經濟」가 加速화된 成長에 의존했으며, 混成經濟가 加速화된 成長에도 어느 정도 의존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在來經濟는 이러한 成長加速화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在來經濟의 潜在的 成長能力이 第1次世界大戰時에 그 限界에 달하자 「近代的 經濟成長」의 初期局面은 終末을 곁했다는 것이다. 넷째는 이렇게 되자 近代部門의 在來經濟에 대한 의존은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현저하게 감퇴했다는 것이다. 이는 日本의 經濟的 近代化가 農業部門에서 發展의 剩餘를 創出했고, 近代部門과 在來部門이 逆시流의 均衡잡힌 「補完的 發展」을 함으로써 外資에 의존함이 없이 國內의 潜在的 成長能力을 最大限

33) S.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Findings and Refl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73.

34) 南亮進 著, 『日本の經濟發展』, 東洋經濟新聞社, 1981年, p. 8.

35) R. Nurkse, 앞의 책, 1955.

36) 大川一司・H. Rosovsky 共著, 앞의 책, 1973年, pp. 17~23.

으로 발취하면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의 우리 韓國의 開發戰略 과는 매우 對照的이었다는 것을 想起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日本은 第1次世界大戰 이후 부터는 不均衡 成長을 하게 되지만 그것도 1950년대 중반에 오면 루이스(W.A.Lewis) 流의 「轉換點」이 이루어져 近代部門과 在來部門의 生産性隔差가 解消되기 시작했다.

### 3. 官民協調體制

中國은 文治儒敎國家의 文人官僚制度의 나라였다고 하지만 日本의 德川幕府(1603年~1867年)은 武治儒敎國家의 武人官僚政府였다고 한다. 森嶋通夫교수는 “中國의 官僚는 中國古典을 마스터하고 詩歌·文藝에 능숙한 文人官僚였음을 반하여 日本의 武士官僚는 武器, 따라서 科學과 技術에 흥미를 가졌다고 한다. 같은 儒敎國家 이기는 하지만, 中國官僚가 西洋科學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 것에 반하여 德川幕府 그리고 明治革命 후의 帝國主義를 표방했던 日本政府는 科學을 배우는데 왕성한 意慾을 보였던 것이다”라고 말한다. 明治政府는 우선 近代敎育制度를 확립하였고, 다음으로 는 유능한 大學卒業者를 그들의 身分과 관계없이(德川幕府時代에는 武士階級 만이 가능했음) 政府部門의 官吏로서 채용되었다고 한다. 近代의 日本은 비상하게 효율적인 立憲·君主制의 官僚政府의 指導아래 經濟·軍事 양면의 확장을 하였다고 한다.”<sup>37)</sup>

明治政府는 사실상 日本이 歐美列強을 經濟的으로나 軍事的으로 「따라잡기」위 하여 내건 國民的 課題가 「富國強兵」의 發展目標였고,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殖産興業政策」이었다. 이 政策은 明治經濟를 政府主導아래서 金融, 海運, 鐵道, 郵便, 電信등의 순서로 이른바 「外部經濟」를 확립시켰고, 鑛山業과 같은 것도 民間에게 拂下하는 형태로 近代産業을 발전시켰다.” 明治政府는 “新時代의 意識에 각성한 知識階級(주로 旧下級武士階級)에 의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大規模工場의 國營企業의 經營管理도 같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고 한다.”<sup>38)</sup> 그래서 森嶋通夫교수는 國家資本主義의 나라로서 출범했다고 한다.

그 당시 武士出身의 實業家도 많았다고 한다. 27名の 代表的인 實業家 중에서 武士 10名, 農家の 豪農 10名, 순수한 商人은 1名에 불과하다.<sup>40)</sup>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殖産興業政策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업들이 새로운 知識을 배운 士族出身의 官僚, 政府와 유착된 實業家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地方에서도 都市에

37) Michio Morishima, 앞의 책, 1982, 韓國語譯, pp. 9~17.

38) 拙稿, 앞의 論文,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84年, pp. 93~97.

39) Michio Morishima, 앞의 책, 1982, 韓國語 譯.

40) 中村隆英 著, 앞의 책, 1982年, pp. 91~95.

서도 銀行, 鐵道, 製絲, 紡績業 등의 분야에서 都市의 商人, 地方의 地主가 새로운 産業에 出資하고 經營을 맡았고, 明治後期에 오면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어 이른바 近代의 經營者層이 明確하게 形成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日本의 官民協調體制는 뿌리 깊은 것이지만 西川俊作교수는 殖産興業政策은 開港 당시의 江戸時代부터 시작한 것이며, 民間企業인과 政府官吏가 서로 協調하여 殖産興業, 富國強兵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慣行을 확립시켰고, 1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徳川 末期부터의 그 連續性을 강조하고 있다.<sup>41)</sup>

官民協調體制的 또 하나의 例를 들어 보자. 1950년대 초에 戰略産業으로 自動車工業을 育成하려 할 때 企業人들 사이에서도 그 無用論이 支配的이었다. 그러나 日本의 通商省 官吏들은 자동차공업을 高度化시킨다는 것은 機械工業, 나아가서는 産業全般을 高度化시키고, 이것이 또한 國際競爭力을 높여 自動車工業으로 하이급 先進國을 따라잡게 하여 國民經濟를 發展시키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計劃을 밀고 나아갔다. 1950년 그당시 美國의 乘用車 生産은 6백66만6천대, 日本은 1천6백대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美國은 6백37만6천대, 日本은 7백3만8천대로 사태는 역전됐다. 重化學工業의 育成政策에 있어서도 通商省 官吏들은 무엇이 戰略産業이고 成長産業인가를 판단하여 「한 企業에 하나씩」 自立할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 企業人들도 保護育成的 代價로 國民에게 보답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다. 「후다」(本田) 같은 작은 乘用車는 그 좋은 例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官民協調體制를 흔히 「日本株式會社論」이라고도 하는데 美國의 더로우(L.Thurow) 교수는 이에 對抗하기 위해서 「美國株式會社論」을 펼치고 있다.<sup>42)</sup>

1975년부터 日本의 大量的 國債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1979년에는 増稅(-般消費稅)로 財政再建을 期했지만 自由民主黨이 總選舉에서 패배하자 「큰 政府論」에서 増稅없는 財政再建策으로 行政政策을 推進하면서 「작은 政府論」을 표방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작금 美·日貿易摩擦에서 오는 円高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對應策으로서 앞으로 政府支出의 擴大, 公的 金融의 比重(예를 들어 1984년말 現在 郵便貯蓄은 個人金融資産의 32%나 차지하고 있음), 金利自由化의 지연 등을 감안할 때 「21世紀를 向한 「작은 政府論」이 定着하게 될지는 現段階에서는 結論을 내릴 수가 없으며, 政府의 介入主義가 뿌리 내릴 可能性도 남아 있다」고 「野村報告書」는 내다보고 있다.<sup>43)</sup>

41) Shinsaku Nishikawa, Osamu Saito, 앞의 論文, 1983, pp. 20. ~ 21.

42) L. C. Thurow, *The Zero Sum Society*, Basic Books Inc., 1980, p. 192.

43) 野村總合研究所 編, 앞의 책, 1985年, pp. 50~59.

#### 4. 技術導入과 改良工業

森嶋通夫교수는 “東아시아의 一隅에서 延命하기 위해서는 日本사람들은 儉素 하고 勇敢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고,…… 德川幕府 末期에 와서는 鎖國政策이 더이상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民族主義가 沸騰하였고, 따라서 日本人은 방향을 바꾸어 西歐技術을 習得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고 한다.<sup>44)</sup>

外國으로부터 技術을 도입하는 이른바 「借用된 技術」(borrowed technology)이 後發國에 定着되려면 그 나라의 ① 資源이나 輸送 등의 自然條件, ② 導入技術에 대한 適應能力, ③ 技術의 獨占, ④ 그 나라의 經濟政策등에 의존하는 법이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③과 ④의 경우 導入技術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②는 導入技術에 약간의 改良을 하는 경우이다. 日本의 경우,鐵道, 製鐵業, 造船을 보면 機關車·客車·레우·條理用機械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輸入했고, 工事を 위하여 外國人 技術者들이 와서 일했다. 初期의 殖産興業政策은 政府가 主導하여 大企業을 育成하는 獨占의 經濟政策이 될 수 밖에 없었고, 海運, 電力, 개스業등은 獨占事業이었다.

明治日本의 産業중에서 企業으로서 成功한 것은 섬유산업이며, 그중에서도 製絲業, 綿紡産業 그리고 약간의 雜貨類에 限定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들 分野에서는 導入技術이 日本의 社會的 風土에 맞도록 改良되면서 受容됐고 導入技術을 改良하여 生産性を 높이므로써 費用을 떨어뜨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技術을 改良하는 것을 大川一司교수와 로소후스키교수는 「改良工學」(improvement engineering)이라고 했고, 그 意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즉 “日本이 稀少한 資本을 철저하게 利用한 또 하나의 領域이 있다. 이것이 바로 「改良工學」이라는 기능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日本의 經濟의 近代化를 概觀해 보면 곧 알 수 있지만 核心的인 發明이란 사실상 찾아 볼 수는 없다. 基礎的인 技術은 美國이나 구라파에서 導入됐지만 導入된 技術은 조직적으로 改良됐다. 지금은 日本의 企業家들에게 이러한 活動은 뿌리 깊게 내려진 하나의 傳統이 되어 버렸고, 수많은 歷史的이고 現代의인 例를 들 수가 있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한편 改良工學은 勞動者의 資質을 向上시키며 자기가 만드는 製品에 대하여 「注意깊은 分解와 섬세한 改良을 수반하는 結合」의 活動이며, 이것은 生産과 直結된 다”고 말한다.<sup>45)</sup> 물론 技術을 改良한다는 것은 슈페터가 말하는 核心的인 「技術革新」은 못되지만 改良技術은 사실상 사람들이 이미 앞에 確認된 方向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基礎研究(basic R & D)에 비하여 費用도 적게 든다.

44) Michio Morishima, 앞의 책, 1982年, 韓國語 譯, pp. 15~16.

45) 大川一司, H. Rosovsky 共著, 앞의 책, 1973年, pp. 266~268.

그렇다면 日本人이 남달리 改良工學에 뛰어난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역시 日本人의 性格이나 國民性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日本의 한 技術開發專門家は 이것을 美國人과 日本人의 知力分布狀況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sup>46)</sup> 우선 美國人의 知力分布를 보면 엘리트와 大衆의 知識差의 分布가 넓고, 日本人의 경우는 그 中間에 位置하는 階層이 많다는 것이다. 基礎開發研究는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分野에서는 美國은 日本보다 優位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1925~1955년에 걸쳐 世界에 君臨한 美國技術의 優位는 이것을 말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技術突破가 없어지고 生産技術이 勝負를 결정할 때에는 「어떻게 만드느냐」(How to make)가 문제가 되며, 이것은 日本이 有利하다는 것이다. 1955년 이후 日本이 國際競爭力에서 優勢하게 된 까닭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

今世紀에 들어와서 텔레비전, 트랜지스터, 半導體, 컴퓨터, 레이더, 原子力, DDT, 페니실린, 나이론, 포리에스테르섬유 등 技術革新이 이루어졌지만, 1955년 이후 새로운 기술혁신이 停滯되었고, 自動車나 텔레비전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競爭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日本의 技術을 뒷받침한 것은 中間管理層 또는 勤勞者層의 優位가 日本의 産業發展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日本經濟를 理解 하려면 日本이 가지고 있는 産業組織의 特殊性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 IV. 日本人의 勤勉精神

日本人의 勤勉精神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물론 定設은 있을 수가 없으며, 몇 가지 假說이 있을 뿐이다.

歐美의 近代資本主義의 發展을 거론하는데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를 말하듯이 日本의 資本主義의 發展을 거론하는데 日本이 갖는 固有의 儒敎精神을 말하기도 한다.

##### 1. 막스 베버의 「資本主義」의 精神

알려지 막스 베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1905년)에서 基督教의 清教徒들이 갖는 儉約과 勤勉精神이 資本蓄積을 가능케 했고, 職業을 하늘이 내린 天職으로 아는 職業倫理觀이 資本主義를 밀어 준 原動力이라고 보았다.<sup>47)</sup> 베버가 資本主義를 지탱하는 것이 人間의 精神에 있다고 보게 된 결

46) 牧野昇 著, 『研究開發の知識』, 日本經濟新聞社, 1976年, p. 61.

47) M.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05(英文版 1930)



정적인 動機는 20世紀 초엽에 美國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활짝 피고 있던 美國經濟의 發展과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선 베버가 펼친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에 대한 大塚久雄 (오쓰카 히사오) 교수의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sup>48)</sup>

베버는 宗教社會學의 研究를 통하여 近世初期에 있어서 資本主義나 人間類型論을 전개했고, 이것을 禁欲的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에서 찾았다. 베버는 「資本主義의 精神」의 中心內容을 이루는 「에토스」(ethos)를 깊은 基督教 信仰에 기초한 「世俗內的 禁欲」이라고 했다. 베버가 말한 「資本主義의 精神」이란 흔히 오늘날 말하는 暴利하고 投機하는 商人의 「資本主義의 精神」이 아니라 資本家로, 勞動者로, 企業家로, 賃金勞動者로 「한푼의 값어치를 한 푼으로 交換하는 精神」을 말하며, 이것이 近世初期에 英國을 위시하여 美國, 넓게는 西歐에서 競爭을 통하여 「正常價格」(normal price)이 成立되는 合理的인 市場메카니즘을 쫓아 올리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베버가 말한 「에토스」 즉 精神이라고 할까 倫理概念은 『로빈슨 크루소의 漂流記』(Daniel Defoe, 1660년 ~ 1731년)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人間類型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sup>49)</sup> 그 당시 부파·부루조아인 經營者들은 「正常價格」으로 물품을 供給하여 「正常利潤」(normal profit)을 획득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隣人愛를 실천하는 것이므로 제각기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이른바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을 받은 職業倫理가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베버는 基督教중에서도 禁欲的 프로테스탄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갖는 素質, 儉約精神, 勤勉精神이라는 德性이 자기의 職業을 天職으로 생각하는 思想과 「世俗內的 禁欲」에 뒷받침된 「營利心」을 부정하는 倫理가 形成되어 이것이 資本主義의 經濟發展에 精神的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았다.

日本의 資本主義에서도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는 그 原流를 달리하면서도 日本의 歷史, 風土에서 자란 獨特한 勤勉精神이 있었다고 한다. 江戸時代의 鈴木正三, 石田梅岩들이 펼친 「心學」에서 日本의 勤勉精神의 뿌리를 찾고있다. 특히 石田梅岩이 펼친 「心學」의 思想은 職業을 天職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는 實踐哲學의 思想이었다고 한다. 石田梅岩이 제창한 勤勉精神에 기초한 職業觀은 베버가 펼친 프로테스탄티즘의 職業倫理와 사실상 같은 性格을 갖는 것이라고 日本經濟新聞社의 研究팀

48) 大塚久雄 著, 『社會科學における人間』, 岩波新書, 1977年, pp. 112~160.

49) 大塚久雄 著, 앞의 책, 1977年, pp. 22~69.

은 주장하고 있다.<sup>50)</sup>

## 2. 日本型 儒教精神

한편 森嶋通夫 教授는 日本의 資本主義를 밑고 온 「에토스」(精神)로서 日本이 갖는 固有의 儒教精神을 들고 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1905년)을 펴친 다음에 比較宗教研究를 통하여 「世界宗教의 經濟倫理」에 관한 문제에 착수하게 된다. 여기에서 베버는 儒教와 피오리턴니즘(puritanism)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sup>51)</sup> 우선 「피오리턴니즘」은 「現世拒否」의 「內面的 品位の 倫理」라고 했다. 現世拒否란 現世를 하나의 나그네 人生으로 보고 來世를 참다운 고향으로 보는 基督教 信仰을 말한다. 內面的 品位の 倫理란 사람과 善意의 마음가짐, 즉 隣人愛를 말한다. 이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피오리턴니즘」의 倫理가 現狀을 改革하려는 能動的인 性格을 갖는다고 베버는 본다. 이에 반하여 儒教는 「現世肯定」과 「營利寬容」의 樂觀論을 펼치며 「外面的 品位の 倫理」라고 본다. 그러니까 外面의 形式이라는가 儀體, 마음의 움직임의 結果로서 나타나는 外面의 形式을 重視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儒教의 倫理는 現狀을 維持한다는 것보다는 現狀에 順應하려고 하며, 따라서 消極的인 性格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고, 中國이 經濟적으로 發展하지 못한 까닭을 이기에서 베버는 찾았다. 이렇게 보면 儒教에서는 「피오리턴니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에토스」는 없다.

孔子는 仁·義·禮·知·信·忠·孝를 德目으로 重視했지만 그 중에서도 仁은 人道의 中心으로 되어야 할 德目이라고 했다. 孔子는 人間의 善性說을 주장했고, 家族內에 있어서의 肉親간의 자연스러운 愛情이 社會道德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人間愛가 家族을 초월하여 未知의 사람들에게도 憎惡感없이 확산될 때 人間性은 完全하게 되어 社會秩序는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人間愛를 몸에 지닌 사람을 仁者라고 했다. 孔子는 仁者가 되는 것을 人間修養의 궁극적인 目的이라고 했다. 그래서 孔子는 “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禮가 아니면 듣지 않으며, 禮가 아니면 動하지 말라.” “君子는 義를 잘 알고 小人은 利를 잘 안다.” “利를 보게 되면 義를 생각하라.”고 말했다.<sup>52)</sup>

日本은 6世紀경에 佛教, 儒教, 道教의 세 宗教를 동시에 韓國을 經由하여 받아

50) 日本經濟新聞社 編, 앞의 책, 1983年, pp. 221~222.

51) 大塚久雄 著, 앞의 책, 1977年, pp. 179~189.

52) 尹絲淳, 『『儒教倫理의 再檢討 - 儒教倫理에 있어서의 仁·義의 概念 - 』』 『現代社會와 傳統倫理』,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6年, p. 91.

들었다고 한다. 儒敎와 道敎는 孔子와 老子가 각각 창시하였지만 日本에 와서는 變質되었다고 한다. 특히 道敎는 상당히 變質·轉化되어 오늘의 日本의 神道가 되었다고 한다.

森嶋通夫 교수는 中國의 儒敎가 日本에 渡來하자 「仁」의 概念이 「忠」의 概念으로 代替됨으로써 日本型 儒敎精神(Japanese ethos)이 形成되었다고 말하고, 일찌기 베버가 「世界宗教의 經濟倫理」研究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日本論을 제창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세히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sup>53)</sup>

첫째, 日本의 儒敎史를 도리켜 볼 때 「仁」의 概念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나 中國의 儒敎가 「仁」 중심의 人道主義의 性格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日本의 儒敎는 「忠」 중심의 儒敎이며, 民族主義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中國에서 「忠」의 概念은 良心에 대한 誠實을 말하지만 日本에서는 君主에게 專心全力하는 誠實心을 말하는 것이다. 즉, 中國인은 “臣下는 자기의 良心에 꺼리까지 않는 誠實性을 가지고 君主에게 봉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日本人은 “臣下는 君主에게 全生命을 바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sup>54)</sup>

둘째, 明治政府는 武士階級을 폐지하고 國民皆兵制를 택했는데 1882년 天皇이 日本軍人에게 내린 勅諭(imperial injunction)에서는 儒敎의 德目 중에서 忠·禮·勇·信·儉素의 5個 項目이 강조되었지만, 「仁」에 관해서는 별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

셋째, 日本은 聖德太子(574년~622년) 이래 거의 일관하여 中國儒敎의 仁·義를 輕視하고, 忠·孝·知를 강조해 왔다. 聖德太子는 日本人의 教育水準을 中國人의 水準으로 끌어 올리려고 했지만 中國 것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받아 드리지는 않았고, 中國의 才能을 日本의 精神에다 接木시켰다는 것이다.

넷째, 國家가 危機에 처했을 때에는 神道の 要素를, 政治體制의 急變이 있을 때에는 儒敎의 要素를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忠」을 강조하는 日本型 儒敎精神이 日本이 歐美와의 軍事的·科學的·技術的 落差를 解消시키기 위하여 強行軍하는데 있어서 生命까지도 바치게 한 것이라고 森嶋通夫 교수는 밝히고 있다.

맑스(K. Marx)는 이데올로기와 倫理는 物質的 諸條件의 反映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베버는 어느 倫理가 주어졌을 때 그 倫理와 兩立할 수 없는 氣風을 사람들로 하여금

53) Michio Morishima, 앞의 책, 1982, 韓國語譯, pp. 21~129.

54) Michio Morishima, 앞의 책, 1982, 韓國語譯, p. 6.

가지게 하는 經濟는 發展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倫理와 兩立할 수 있는 經濟가 나타난다고 했다. 베버가 宗教社會學的 研究에서 펼친 人間類型論의 課題는 大塚久雄 教授가 주장하듯이 比較文化論, 文化人類學의 領域에 관한 研究를 要請하는 것이라고 하겠다.<sup>55)</sup>

## V. 資源이 없는 섬 나라

일핏 보기에는 逆設의인 이야기 같지만 日本은 資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日本型 所得政策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sup>56)</sup>

日本の 經濟的 近代化를 뒷받침한 原動力은 역시 海外로부터 原材料를 輸入해서 이것을 輸出하는 加工貿易이었으며, 이것을 具現시키는데 있어서 經營者나 從業員 雙方에게 있어서 企業은 富의 源泉이라는 共同運命體의 集團意識이 日本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으며, 年功序列, 企業別 勞組, 終身雇傭制는 이러한 共同運命體로서의 企業을 발전시키고 存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制度라고 日本經濟新聞社의 研究팀은 지적한다.<sup>57)</sup> 그렇다면 이러한 日本人의 集團意識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최근 美國의 크리스토퍼(R. C. Christopher)가 말하는 日本人의 行動樣式의 내용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sup>58)</sup>

### 1. 日本人의 行動樣式

크리스토퍼氏는 오늘의 日本人의 性格을 다음 일곱가지의 命題를 제시하면서 그 歷史의 起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解明하고 있는데 우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日本人은 日本語의 複雜性에 미루어 보아 單刀直入의인 對話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② 日本人은 人種的으로 보나 어느 나라보다 同質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西歐化하면서도 자신들의 主體性(identity)에 대한 강력한 自覺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③ 日本社會는 閉鎖的이라는 것이다.
- ④ 日本人은 나라에서 自己 社會에까지 所屬集團에 대한 忠誠心이 強하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效率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55) 大塚久雄 著, 앞의 책, 1977年, pp. 208~223.

56) 日本經濟新聞社 編, 앞의 책, 1983年, pp. 223~225.

57) 日本經濟新聞社 編, 앞의 책, 1983年, pp. 223~225.

58) R. C. Christopher, *The Japanese Mind: The Goliath Explained*, 1983, 徳山三郎 譯, 『ツヤヘ ニーズ・マインド』, 講談社, 1983年, pp. 35~59.

⑤ 日本人은 個人이 直接的으로 對立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合意(consensus)를 얻은 다음에 行動한다는 것이다.

⑥ 日本人의 基本的인 關心은 「이데올로기」도 宗教도 아니며, 所屬組織의 福利를 위해서는 容易하게 變化를 받아 들인다는 것이다. 때로는 西洋人으로부터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기 위한 오로지 그 理由 때문에 變化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⑦ 日本人은 外國의 思想이나 制度, 그리고 技術을 吸收하는 데는 積極的이지만 外國人과의 接觸은 대부분의 경우 싫어한다는 것이다. 日本人은 內心으로는 外國에 대해 優越感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상의 結論은 크리스토퍼氏가 文化人類學의 견지에서 오랫동안 研究한 끝에 얻어 낸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몇가지 重要한 事項을 지적해 보기로 하자.

첫째, 地政學의 條件이다. 日本은 1945年 美國의 占領軍이 오기전까지는 한 번도 外侵을 받지 않았다. 1274年과 1281年에 두 차례에 걸쳐 蒙古의 기습을 받았지만 이것도 이른바 神風이라는 暴風雨 때문에 도주했다는 것이다. 韓半島가 수백 차례에 걸친 外侵의 짓밟힌 通路였다는 사실과는 매우 對照的이라고 하겠다.

둘째, 日本人이 民族의 主體性을 갖게 된 배후에는 逆說的이지만 “日本 民族이 弱者라는 意識이 뿌리깊게 내려 있다”고 크리스토퍼氏는 말하고, 첫째로는 有史 以來의 빈번한 颱風이나 地震, 둘째로는 日本經濟가 輸入에너지가 기타 輸入資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셋째로는 國土의 狹少性을 들고 있다.

셋째, 日本人은 所屬集團에 대한 忠誠心이 強하다는 것이다. 日本人은 失敗도 成功도 集團全體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나는 몰랐다는 말은 日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넷째, 日本人의 合意方法인데 흔히 「혼네」(마음 속에 있는 것)와 「네마와시」(相對方的 意思타진)라고 한다. 이러한 合意方法은 “日本人이 갖고 있는 集團에 대한 責任感에서 온다”고 한다.

다섯째, 日本人의 順應力(柔軟性)이다. 앞에서 언급한 日本人의 合意方法은 “이들의 制度(硬直性)를 매우 柔軟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금의 日本民族은 世界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強한 民族의 同質性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混合民族이었고 同化되는데 1천여년이 걸렸다고 한다.

요컨대 크리스토퍼氏는 오늘날 日本이 美國 다음으로 經濟大國으로 부상하게 된 까닭을 美國과는 달리 서로 相反되는 「強力한 集團意識」과 「個人의 責任感」을 훌륭하게 調和시킬 수 있는 日本人의 特異性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 2. 硬軟併存的 産業社會

篠原三代平 教授는 오늘의 日本의 産業社會를 硬直性和 柔軟性を 가진 社會라고 보고 여기에서 오늘의 日本經濟의 活力을 찾고 있다.<sup>59)</sup>

예를 들어 企業集團에 속하는 銀行이라 할지라도 系列外의 企業에게 最大限의 融資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日本의 産業組織이 柔軟性を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企業集團內에 있어서 株式의 持分도 매우 伸縮性を 가진 것이라고 한다.戰後 日本이 重化學工業 中心의 不均衡成長을 이겨낸 것도 이러한 産業組織의 柔軟性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한편 企業集團 밖에서 거느리고 있는 系列社의 關係會社에 대한 支配力은 매우 硬直的인 것이어서 母會社의 株式所有의 比率은 심한 경우에는 100%나 되는 경우가 많고, 母會社의 任員을 慣行的으로 派遣하여 部品을 생산하고 供給하는데 있어서 生産方法이나 技術向上을 지도함으로써 費用節減을 가져와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킨다는 것이다. 新開陽一(신카이요이찌) 教授도 日本의 産業組織의 柔軟性, 勞·使間의 賃金決定에 있어서의 柔軟性을 日本經濟의 活力이라고 보고 있다.<sup>60)</sup> 이와 같은 日本의 人類學者 江上波夫와 護雅夫 두 사람이 펼친 「騎馬民族說」에서 찾는다.

騎馬民族說에 따르면 日本民族의 先祖는 南方으로부터 北上한 農耕民族인데 蒙古에서 韓半島를 거쳐 日本에 들어와 北方 遊牧騎馬民族이 征服하고 農耕民族과 一體化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農耕民族은 土地에 定着하고 있는 關係로 封鎖的이며 자기들의 生活圈 중심으로 生活하기 때문에 保守主義와 傳統主義에 기울어져 行動도 靜態的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遊牧民族은 放浪生活者이므로 過去에 대한 기억도 희박하여 文化的 傳統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어떠한 世界에도 뛰어들 수 있는 積極的과 活力을 가지고 있고 挑戰的이며, ダイナミック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兩者는 매우 對照的의다. 農耕民族은 地域社會 中心的이며, 保守的·權威主義的이며, 運命論的이지만 遊牧民族은 個人中心的이며, 實利的이라는 것이 騎馬民族說이 주장하는 內容이다.

이렇게 人類學的으로 따져가면 現在의 日本의 産業社會에는 그 나름대로의 確固한 기초가 있다고 篠原三代平 교수는 말하고, 先進國의 制度나 理論을 그대로 日本에 適用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59) 篠原三代平著, 앞의 책, 1982年, pp.174~180.

60) 新開陽一 著, 『日本經濟の活力』, 東洋經濟新報社, 1981年, pp.11~15.

이렇게 日本은 開港의 壓力을 받아 日魂洋才라는 異端의 論理를 가지고 歐美를 따라 잡았던 것이다.

## VI. 맺는 말

日本은 1984年 現在 1人當 GNP가 1만달러를 넘어섰다. 美國은 1985年 現在 1人當 GNP는 1만 6천 2백달러이지만, 10年後 1995년에 가면 日本은 1만 8백달러가 되어 美國과 같아진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日本은 美國을 능가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지금 世界經濟는 4極化의 現象을 보이고 있다. 1985年 現在 世界 GNP에 차지하는 美國의 比重은 28%(2次大戰직후 50%), 日本의 比重은 10%(60年代만 하더라도 2%에서 3%), 歐洲 EC는 17%, 蘇聯·東歐圈은 19%로 되어 있다. 이것이 1995년에 가면 美國은 25%, 日本은 15%, 歐洲 EC는 20%, 그리고 蘇聯·東歐圈은 18%가 될 것으로 「野村報告書」는 展望한다. 韓國을 위시하여 中國을 포함해서 22個國이 사는 西太平洋經濟가 世界 GNP에 차지하는 現在의 比重은 6%인데 1995년에 가면 7%가 된다고 한다.<sup>61)</sup> 그러니까 1995년에 가서 日本과 西太平洋地域을 합치면 25%가 되어 美國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4極化 傾向에서 우리가 有意해야 할 것은 日本의 比重이 높아지고 반대로 美國의 比重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日本과 西太平洋經濟를 합친 아시아·太平洋經濟圈이 60年代 以後부터 世界經濟에서 「成長軸」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對備하여 日本은 過去 英國의 「팍스·브리태니커」時代에 등장한 「런던」의 國際金融·資本市場과 美國의 「뉴욕市場」에 對等할만한 「東京市場」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計劃을 세웠다는 것이다. 「野村報告書」란 사실상 이 計劃인 것이다.<sup>62)</sup>

일찌기 未來學者 하먼 카안(Herman Kahn)은 60年代 후반에 『西紀 2000年』(1967年)이라는 著書에서 “21世紀는 日本이 판을 치는 世紀다”라고 展望했고, 그 論據로써 「旺盛한 企業家 精神」과 日本人의 「勤勞에 대한 態度」를 제시했다.<sup>63)</sup> 말하자면 日本

61) 野村總合研究所 編, 앞의 책, 1985年, pp. 119~129.

62) 野村總合研究所 編, 『10年後の世界經濟と金融·資本市場, 第2部 10年後の世界 金融 資本市場』, 1985.

63) H. Kahn and A. J. Wiener, *The Year 2000, A Framework for Speculation on the Next Thirty-three Years*, 1967, 井上 勇譯, 『紀元 200 年』, 時事通信社, 1967年, pp. 195~267. 拙稿, “二千年은 天國인가,” 月刊 中央, 『60年代를 움직인 名著들』, 1970年 新年 別冊附錄, pp. 73~79. 참조.

人의 勤勉精神을 들었다.

오늘날 美國의 新保守主義를 대변하는 크라톤의 社會思想은 일찌기 베버가 제창했던 「資本主義의 精神論」의 復活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日本人의 精神論』(1983年)을 펴친 크리스토퍼는 이 著書의 끝머리에서 西紀 2050年에 가서도 「強한 集團意識」과 「個人의 責任感」을 調和시키는 日本人의 國民性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sup>64)</sup>

經濟大國의 盛衰論을 펴친 美國의 올슨(M. Olson) 교수는 일찌기 로마帝國은 알려지지도 않았던 주변의 部族들에 의해 패망했고, 中國帝國도 그들보다 못한 蒙古族이나 가난한 農民들에 의해 쓰러졌다고 했다.<sup>65)</sup>

經濟大國의 盛衰論을 펴친 日本의 篠原三代平 교수는 英國의 「팍스·브리태니커」時代와 現在의 美國의 「팍스·아메리카나」時代를 「世紀的 交代」라고 했지만 日本은 「小交代」혹은 「中交代」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sup>66)</sup> 그가 말하는 小·中交代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吟味해야 하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大川一司・H. Rosovsky 共著, 『日本の經濟成長－20世紀にあける趨勢加速』, 東洋經濟新報社, 1973年.
2. 新保 博・速水 融・西川俊作 共著, 『數量經濟史人間－日本の前工業化社會』, 日本評論社, 1975年.
3. 中村隆英 著, 『日本經濟－その成長と構造』, 東京大學出版會, 1982年.
4. 拙稿, “明治維新과 經濟發展,” 『亜細亞研究』, 高麗大學校 亜細亞問題研究所, 第XⅩⅦ卷, 第2號, 1984年.
5. Shunsaku Nishikawa, Osamu Saito, “Economic History of the Restoration Period Revisited,” *UNU Conference on the Meiji Restoration*, Oct., 1983.
6.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5.
7. 日本經濟新聞社 編, 『資本主義：1983年』, 日本經濟新聞社, 1983年.

64) R. C. Christoper. 앞의 책, 1983. p. 355.

65) M. Olson,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Yale University Press, 1982. p. 1.

66) 篠原三代平 著, 앞의 책, 1982年, pp. 7~23.



8. 拙稿, “二重經濟의 發展메카니즘과 相對的 貧困感”, 『經濟學研究』, 韓國經濟學會 제 33집, 1985년.
9. 南亮進 著, 『日本經濟の轉換點』, 創文社, 1969年.
10. 篠原三代平 著, 『經濟大國の盛衰』, 東洋經濟新報社, 1982年.
11. J. Cornwall(ed), *After Stagflation, Alternatives to Economic Decline*, 1984.
12. 西山千明・内田忠夫・金森久雄・高坂正堯 共著, 『フリードマンの日本診斷』, 講談社, 1981年.
13. Y. Laulan,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Cheating with Apologies to J. M. Keynes*, 1981.
14. *Japan Economic Journal*, April 19, 198, 1986.
15. 野村總合研究所 編, 『10年後の世界經濟と金融・資本市場, 第1部 10年後の世界經濟と日本』, 1985年.
16. A. Stockman, *The Triumph of Politics, How the Reagan Revolution Failed*, 1986.
17. I. Kristol, *Reflections of A Neoconservative, Looking Back, Looking Ahead*, 1983.
18. Michio Morishima, *Why has Japan 'succeeded'?, Western Technology and the Japanese Ethos*, 1982, 李基俊 譯, 『왜 日本은 ‘成功’ 하였는가－日魂才－』, 一潮閣, 1982年.
19.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1962.
20. G. Myrdal,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1956.
21. S.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Findings and Refl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73.
22. 南亮進 著, 『日本の經濟發展』, 東洋經濟新報社, 1981年.
23. L. C. Thurow, *The Zero-Sum Society*, 1980.
24. 牧野 昇 著, 『研究開發の知識』, 日本經濟新聞社, 1976年.
25. M.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05(英文版 1930)
26. 大塚久雄 著, 『社會科學にあける人間』, 岩波新書, 1977年.
27.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現代社會와 傳統倫理』, 1986年.
28. R. C. Christopher, *The Japanese: Mind The Goliath Explained*, 1983. 徳山三郎 譯, 『ジャパニース・マイソド』, 講談社, 1983年.
29. 新開陽一 著, 『日本經濟の活力』, 1981年.
30.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31. J. M. Keynes, *A Treatise on Probability*, 1921, *The Collected Writings of J. M. Keynes*, Vol. VIII, 1973.
32. 野村総合研究所 編, 『10年後の世界経済と金融・資本市場, 第2部 10年後の世界の金融・資本市場』, 1985.
33. M. Kahn and A. J. Wiener, *The Year 2000, A Framework for Speculation on the Next Thirty-three Years*, 1967.
34. M. Olson,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1982.